인생은 한 치도 쉬는 사이 없이 수레가 굴러가는 거와 같다

☞ A23면에서 계속

려면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고 컴퓨터에 입력이 돼야 앞서 잘못된 입력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잘 행해 나갈 수 있는 입력이 돼서 현실에 그 입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해 가면서 살아나가길 바라는 것이지 나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한 주머니에서 한 사람이 모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주머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는다는 게 벌어지고 산다는 게 벌어지고 아프다는 게 벌어지고,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 하고많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매대기치는 그 현상을 여러분은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내 가슴이 안 아프기 위해서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고쳐 드리고 잘 살게끔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여러분의 무엇을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 돈을 모으겠다는 거, 그런 것이 만약에 중들 틈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한테는 여러분이 이익을 보지 못하죠. 이익할 수가 없죠. 마음의 음파는 전 우주를 돌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그대로 우주의 모든 것에 다 음파로써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연이다, 무슨 거짓이다 또는 이거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정확합니다, 아주.

옛날에, 다 따 가고 남은 고추 이렇게 붙은 거 하나를 입이라도 축이라고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면서 그것만 먹으면 안 되니까 물 한 바가지하고 같이 줬어요. 근데 그것을 씹으면서 물 몇 모금을 마셨단 말입니다. 내가 먹기 싫을 만큼 마셨겠죠. 근데 거기에서 뭔 생각이 난 줄 아세요? 물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많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수화풍으로 건더기가 생겨서 형성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지금. 지수화풍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또 죽어서도 지수화풍으로 그냥 모두 나누어져서 흩어진단 말입니다. 물은 물대로 가고 흙은 흙대로 떨어지고 바람은 바람대로 가고 불은 불대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 한 철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다. 무슨 부자로 살아서 돈을 많이 쓰고 모두 걱정 근심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웃을 겁니다.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에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가 하면 한생각으로써 그 일체 바다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지구의 반밖에는, 이 지구가 물속으로 반밖에는 안 차 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수분이 없으면 못 산다. 공기가 없으면 못 산다. 이 따뜻함이, 온기가 없으면 못 산다. 땅이 없으면 딛고 다닐 수도 없거니와 모든 게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 이런 결론이죠. 이런 결론이 주어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만 잘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살았다가는 이 지구에서 벗어나기커녕 오히려 뒤집어쓰고 축생으로 모습을 가지고 날 수도 있고, 아수라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냥 알기 쉽게 이 깡패로 날 수도 있고 또는 진흙땅에 묻혀 있는 생명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떠다니면서 남의 유전이나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 있었다는 것만 알지 죽은 줄은 모르고 자기가 아는 집에 갔어도, 자기가 있었으니까 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를 모른 체하거든. 그러니까 '왜 나를 보고도 모른 체하느냐. 넌 참 나쁘다.' 하고 건드리는 게 병이 되는 거죠.

이 모두 하나하나가 생각하면 참….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애로가 없고 평온하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생활을 몽땅 네 뿌리가 하는 거지 네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너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굴려 놔라. 그래야 입력이 된다. 굴려 놔라.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건 한 치도 쉬는 사이가 없이 수레가 굴러가는 거와 같다. 그런데 그 수레가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항상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알게 된다면 너무도 사는 게 기쁘고 또 미래로 나가면서 자식들을 길러도 그것이, 하다못해 돌 위에 갖다 세워 놔도 산다. 이거는 부모를 또 한생각으로서 둘 아니게 모두 거기다 놓는다면 조상들도 그저 한도량으로, 부처님 한도량으로 모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재사 지낼 때에 반찬, 국, 밥 이런 걸 왜 안 놓느냐. 사람은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그저 어떡하면 살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 돈이 없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 세상이 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 싱긋이 웃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에
>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받칠 수도 있는가 하면
> 한생각으로써 그 일체 바다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떡은 우주의 근본으로 놓고 과일은, 이 꽃공양을 올리는데 꽃이 피어서 지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열려서 제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축생으로부터 모든 미생물까지도.

그러니 이 뜻이 얼마나 크며, 우리가 아주 약소하게 이렇게 하는 거 같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뚝 떨어져서 모든 게 내 거 아닌 게 없이 될 때에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잖아요.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자기 앞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영혼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주먹에 쥐고 다니진 않아도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생각하면 그냥 이루어지고 그럭하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로 우리는 돌진해야 된다.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는 미생물이다, 축생이다, 사람이다, 사람 아닌 또 사람이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데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이런다면 공장에서 모든 물건이 아주 적합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형성되고 내 마음대로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모습을 수천수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이치가 될 때엔 너무도 여러분은 평화롭고 너무도 시원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이런 데가 멀다고 그러죠.

그러나 요기서 조 문지방 넘어서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딴 혹성과 이 혹성, 얼른 쉽게 말해서 토성이나 이 지금 지구, 이것이 한 발짝, 한 발짝이 아니라 요 문, 요 문 나서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멀어도 먼 게 없고 가까워도 가까운 게 없다. 똑같이 한생각에 그냥 뛰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빨리 알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자손들도, 이게 뭐, 자손들 가르치는 데 돈이 드니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간편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키고 나가는 거, 변소에 가서 똥을 눈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참선이구나. 이것도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치구나. 잠을 자는데 숨을 안 쉽니까? 이것도 바로 참선이구나. 그래서 드러눕는 거는 와선이라고 하지만 일하는 거는 행선이라고 합니다. 앉아 있는 건 좌선이라고 하고요. 서 있는 거는 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한데 합쳐서 그냥 생활이 그대로가 여여하게 참선이 되고 여여하게 사는 진리가 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탤런트와 같이 지금, 전자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 따라서 이 세상에 형성돼서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이 되면 함이 없이 모든 거를 다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여기저기 몇 수십 리 밖에 찾아다니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순 에너지로만 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속에도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모두 '기(氣)'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를 딴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중략)

하여튼 이러한 데서 모두 여러분이 발전을 하고, 마음의 지혜가 발전을 해서, 지혜가 커서 보는 것도 심안으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심안으로 듣게 되고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젠 그 말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한바다와 같이 된다면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금 정화가 돼서 청정하게 물이 만들어져서 이 비로 내려올 때, 요만한 풀 한 포기라고 그 비를 안 먹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습니다. 사람이나 이런 초식이나 나무들이나 모든 생명들이 다 먹고도 남죠.

그러니 이러한 큰마음을 쓰시고 우리가 오계를 설한 오늘, 오계도 그냥 '하지 말라'는 없습니다. 술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하면 약주가 안되고 망주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타인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라. 내 모습같이 생각하라. 이렇다면 밉다 곱다 나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걸 간편하게 마쳤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한 한생각에 우리는 우주를 뒹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모두 여러분과 같이 성불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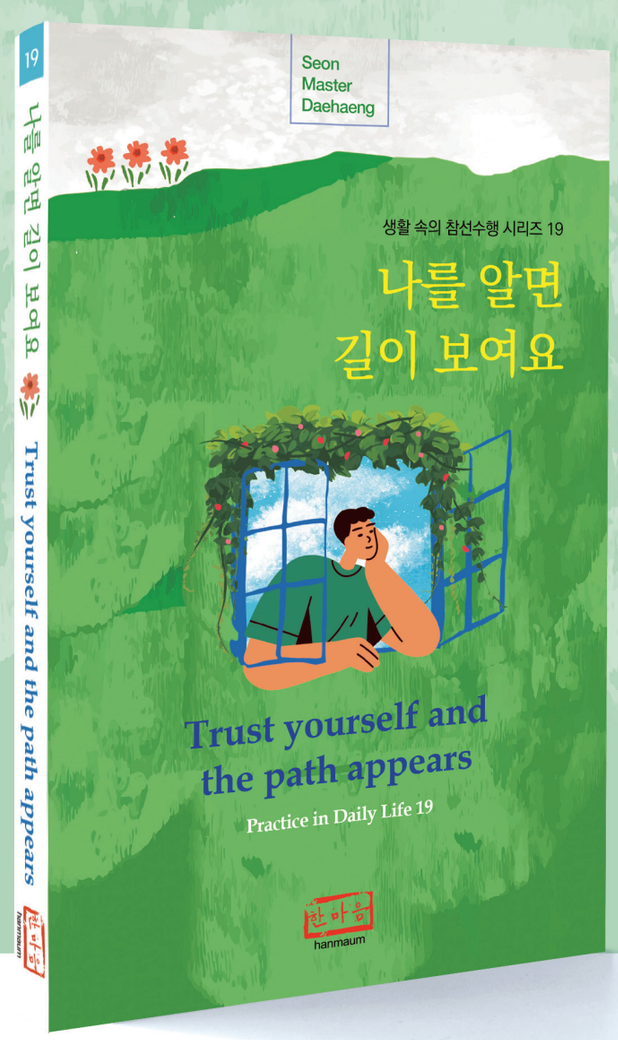
(연비와 음성 공양이 끝나고) 인제 여러분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가 현실에 그냥 여여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도 미래는 일 초 후가 미래고 일 초 전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살이로 산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양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9년 8월 1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